

메시지 6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새사람의 조성 성분으로 알고 체험함

성경: 골 3:1-4, 15-17

- I.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체험해야 한다.
- A.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위치, 한 생명, 한 생활, 한 운명, 한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골 3:1-4, 비교 고전 6:17.
1.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계시는 곳, 곧 그분께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 — 골 3:1, 요 14:20, 17:24, 엡 2:6.
- a. 아들의 위치는 아버지 안이다(요 10:38, 14:10). 우리는 아들 안에 있으므로(고전 1:30상) 아버지 안에 있다(요 14:20, 살전 1:1, 살후 1:1).
- b.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라야 우리는 실질적으로나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하늘 안에 있다(비교 요 14:20).
- (1)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에 의해,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로 전달이 일어나고 있다 — 엡 1:19, 22-23, 2:22.
- (2)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롬 8:34) 바로 그분은 또한 지금 우리 안에(10절),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엡 2:22)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답후 4:22).
- (3)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우리를 하늘로 연결시키시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 엡 2:22, 창 28:12-17, 요 1:51.
- (4) 우리가 우리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에 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우리의 영은 신성한 전달을 받아들이는 끝부분인 반면에, 하나님의 보좌는 전달이 시작되는 끝부분이다 — 히 4:16.
2.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 골 3:4, 요 5:26.
- a.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극도로 주관적이심을 의미한다 — 요 1:4, 14:6상, 10:10하, 고전 15:45하, 롬 8:10, 6, 11.
- b.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생명을 분리하기는 불가능한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생명과 한 생활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요 14:6상, 빌 1:21상.
- c. 믿는 이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는 타고난 생명과 구별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 (1) 이 생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이다 — 갈 2:20.
- (2) 이 생명은 부활한 생명이다 — 요 11:25.
- (3)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 골 3:3-4, 마 6:1-6, 16-18.
3.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늘에서의 사역, 곧 신성한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시는 주님께 연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 즉 그리스도의 생활과 하나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 골 3:1-2.
- a.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오늘날 대제사장으로서 사시면서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 히 8:1, 4:14, 7:25, 4:16, 골 4:2.
- b.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오늘날 하늘에 속한 사역자로서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계신다 — 히 8:1-2, 엡 3:8.

- c.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의 우주적인 행정관으로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신다 — 계 4:1-2, 5, 5:6, 앱 1:10-11.
 - (1) 하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신성한 전달은 위에 있는 것들을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으로 가져온다 — 앱 1:19, 22-23.
 - (2)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의 ‘중앙 정부’에 대한 이상을 보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대사관들’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상을 본다. 일곱 영을 통해 하늘의 ‘본부’에 있는 것이 ‘대사관들’인 교회들 안으로 전달된다.
 - (3)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지시 아래 있어야 한다. 회복이 ‘주님’의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주님의 지시 아래 있어야 한다 — 골 1:18, 2:19, 계 4:2-3.
- 4. 우리의 운명은 영광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나타나도록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 — 히 2:10, 골 3:4.
- B.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신 그리스도는 금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만나로 예표되신다 — 골 3:3-4, 출 16:32-34, 계 2:17.
 - 1.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는 금항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다. 아버지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신 언약제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또한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사시면서 지성소의 실재가 되신다 — 비교 요 14:16-20, 담후 4:22.
 - 2. 우리가 감추어진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를 위해 그분 안으로 합병된다 — 요 15:5, 7, 8:31, 6:57, 63, 14:23.
- C.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킨다 — 골 3:4상.
 - 1. 그리스도는 반드시 실질적이고도 체험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하며, 매일 우리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 골 3:4, 고전 15:45하, 롬 5:10.
 - 2. 새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그분을 산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 골 3:3-4, 10-11.

II.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한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새사람의 조성 성분으로 알고 체험해야 한다.

- A. 새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다. 그분은 새사람의 모든 지체들이시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신다. 그분은 새사람 안에서 모든 것이시다 — 골 3:10-11.
- B.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중심과 전부이다. 그분은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시며, 따라서 새사람 안에서 그분은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
- C. 우리가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신 그리스도를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골 3:12-15),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16-17절).
 - 1.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 — 골 3:12-15, 앱 2:14-18, 롬 5:1, 마 18:21-35.
 - a. ‘판정을 내리다’에 대한 헬라어는 또한 ‘심판을 보다’, ‘다스리다’, ‘모든 일의 통치자와 결정자로서 보좌에 앉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도록 할 때, 그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불만은 해결된다 — 골 3:13.
 - b. 종종 우리는 우리 속에 세 편, 곧 긍정적인 편과 부정적인 편과 중립적인 편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다툼을 끝내는 내적 중재가 필요하다.
 - (1) 언제든지 우리의 존재 속에서 여러 편이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화평에 지위를 내어 주고, 새사람의 하나(eness)라는 이 화평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최종 단안을 내리도록 허락해야 한다.

- (2) 우리는 우리의 의견, 곧 우리의 관념을 제쳐 두고, 내주하시는 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c.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면, 이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을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화평을 가질 것이다.
- (1)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을 통해,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되고 성도들 간의 마찰은 사라진다. 그럴 때 교회생활은 달콤함 속에 보존되고 새사람은 실질적으로 유지된다.
 - (2) 그리스도의 화평이 판정을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마지막 발언을 하시며,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다 — 비교 사 9:6-7.
 - (3) 우리가 보좌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의 화평의 다스림 아래 머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거나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 그분의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 (4) 이러한 화평이 모든 믿는 이들을 함께 묶어 주어야 하고, 또한 그들의 매는 띠가 되어야 한다 — 엡 4:3.
2. 우리가 새사람의 조성 성분이신 그리스도를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한다 — 골 3:16-17.
- a.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고 우리를 하나와 조화가 가득한 상황 안에 지켜 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곧 그분의 신탁의 말씀이 있는 장소가 된다 — 골 3:15-16, 계 2:1, 7.
-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하나(eness)가 요구된다. 분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소시키고 심지어 완전히 멈추게까지 한다 — 레 1:1.
 - (2)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 골 3:15.
 - (3)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분한 입지를 가져 우리의 온 존재에 침투하고 온 존재를 적신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관념과 의견과 철학을 대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시 119:130, 비교 계 21:23, 22:5.
- b.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차지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우리의 존재 안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다 — 골 3:16.
- (1)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시 119:105, 130), 우리를 양육하며(마 4:4, 딤후 전 4:6), 우리를 적시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한다(사 55:1, 8-11).
 - (2)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요일 2:14하, 잠 4:20-22), 찢고(엡 5:26), 건축한다(행 20:32).
 - (3)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써(요 17:17)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딤후 3:15-17), 세워 준다.
- c.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우리는 합당한 사람, 곧 하나님의 속성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진 하나님-사람이 될 수 있다 — 골 3:16-25, 빌 4:5-8.
3.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새사람을 가질 것이다. 주님의 회복 전체에 걸쳐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새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있을 것이다.